

광주 재건축조합장 해임 놓고 갈등

광주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해임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영주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은 지난달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와 이사·감사 등 6명에 대한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 해임안을 가결했다.

임시총회에는 의견권을 가진 조합원 1006명 중 531명이 직접 참석 또는 서면의결을 통해 투표에 참여, 이 중 506명이 A씨 등 임원진의 해임에 찬성했다.

이들은 해임 사유로 ▲정비기간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직무유기 ▲지장물 제거 용역업체 선정시 조합비 과다지출 ▲시공사 도급계약 공사

조합장, 법원에 해임 의결 효력 가처분 신청

조합은 새 임원진 선출 준비...철거신고 지연

비 180여억원 증액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이권게임 의혹 등 8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면의결 철회서 99장을 확보해, 총회 효력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임 가결 직후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A씨

는 조합장 직인과 관련 서류를 챙긴 뒤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씨 등과 비대위 측은 수차례 승강이 끝에 서로를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합은 해임되지 않은 이사 1명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새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조합 구성원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

다. 해당 사업은 화정동 영주주공아파트 단지를 철거한 9만6582㎡ 부지에 197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주를 마쳤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철거공사가 시작돼야 하지만, 조합 내분으로 인해 구청에 내야 하는 철거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조합원 간 갈등에 대해 구청이 개입할 권한이 크지 않다.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임원진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유형주점 종사자 상습 협박·폭행 3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유형 주점 종사자들을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속칭 보도방 업주 안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에 지역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과 보도방 기사에게 주막질을 한 뒤 술병을 던지고, 지난 1월 중 다른 보도방 업주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 동네의 유형업 이권을 장악한 안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특정 유형주점에 도우미를 제공하지 마라" 단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맞춰라" 등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협박·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실내수영장서 수영하던 50대 숨져

인천의 한 복지회관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숨져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2분께 서구 모 복지회관 수영장에서 A(52)씨가 수영하다 의식을 잃고 빠져 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갑자기 수영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전 수칙 준수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사 흥기로 위협 후 택시 뺏은 30대 검거

개인택시 기사를 흥기로 위협한 후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개인택시 기사를 흥기로 위협한 후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9)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6분께 김천시 울곡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62)씨를 흥기로 위협 후 택시를 뺏어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대구방면으로 이동해 지하철 2호선 문양역 부근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추적해 범행 7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9시50분께 대구 달성군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 40대 검거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까지 한 40대 유형업 종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모(40)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 수액을 맞으러 방문했다가 내시경실에 보관 중이던 항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 간호사는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이 일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뒤 "환자가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당시 조씨는 수액을 맞고 있었으며, 훔친 프로포폴을 함께 투약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집에서 켄 후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하고 나머지를 휴지통에 버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병원 내 휴지통에서 조씨가 쓰고 버린 프로포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조씨가 누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사범 59명 입건

광주지검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6일 현재 59명(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 포함)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6명(2명 구속)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40명은 수사중이다.

이날 현재 내사중인 인원은 지청 포함 13명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32.5%, 사전선거운동이 10%를 차지했다.

지역별 입건 인원은 광주지검(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관할) 28명(2명 구속), 목포지청 15명, 순천지청 13명, 해남지청 3명, 장흥지청 2명 순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광주 지역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신고 2건에 대해 각각 1억 원 씩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춘정 기자



전통 장 민들어요 7일 서울 광진구청 옥상에서 열린 '내 인생 첫 도전! 장! 전통식품 장 담그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장을 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한국자산 8건 압류신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징용 피해 양극덕 할머니 등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종근 할아버지는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압류 신청을 한 피해자의 채권 규모는 8억4000만원이며 대상은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

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앞서 소송 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대리인단은 지난 1월18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관할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2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미쓰비시 측은 거부했다.

또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징용 절차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압류신청은 합리적 방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류절차에 이어 불매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와 일본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봉우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